

비밀주의가 '불평등 계약' 낳고 적자 키워



긴급진단 전남 F1 10년

<中> 계약서부터 공개해야

지난 2006년 포뮬러 원(F1) 대회를 유치한 전남도는 10년째 계약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였던 전남도 일부 고위 공직자, 2010~2011년 F1 운영법인 및 F1 조직위원회 고위관계자, FOM(Formula One Management) 임원 등 극소수만이 공유하고 있는 이 '불평등·노예 계약'은 조금씩 외부로 유출됐지만 여전히 비밀에 가려있다. 10년이 지난건만 여전히 대회 미개최 시 위약금 규모에서 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숨기면서 6년간 8752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것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대회 미개최에 의한 위약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해야하는데 기밀을 유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남도에 다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초 2010~2011년 F1 운영법인인 카보와 FOM과 계약을, 이후 카보가 자본잠식 등 파산 직전에 몰리자 2012년 F1 조직위가 다시 '레이스 프로모션 계약'을 맺었다. F1 조직위는 당시 재계약 과정에서 불평등 조항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개최권료 10% 할증 및 중계권료 지급 조항 등을 삭제하면서 다른 부분은 미처 손을 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일보가 전남도와 F1 조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레이스 프로모션 계약'은 모두 4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대회 준비 및 운영에 대한 일반 조항, 녹화·지적재산·아트위크 관련 조항, 지불·신용장·해지 관련 조항, 계약상 일반 조항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계약 이후 FOM과 주고 받은 문서 내용에 대해 전남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각 조항마다 이를 어겼거나 계약대로 실행하지 못할

계약 내용 10년 동안 숨겨 위약금 규모·이연계약 소문 무성 국제법상 불평등 여부 밝혀내 부당한 '혈세' 투입 막아야

경우 위약금 단서가 첨부돼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지난해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낸 보고서에서도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지만, 영국 법률을 고려하면 약 4000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전례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F1 조직위는 FOM 측과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계약상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댓가 없이 이를 묵인할 수 있을지 악문이다. 또다시 어떤 계약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한 법학 전공교수는 "국제법상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다른

국가와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 지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F1조직위가 FOM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1대회만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지자체 직접 투자 사업 등 대규모 자금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 과정에서 업체와 맺는 '비밀 계약'은 언제나 비리·부실·불평등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 및 계약 일체를 공개한 뒤 타당성을 인정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F1대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전남도에 제안했던 전남도의회 김기태(새정치·순천1) 의원은 "당시 특위를 통해 F1의 예산결산자료, 사용내역, 협약 내용, 적자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려 했으나 민선 6기 전남도가 지켜봐달라며 만류했다"며 "이제는 F1 대회의 전반에 대해 평가·분석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데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 모습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주요 강사



최진석, 임홍길, 진준권, 박경철, 이영돈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기 원생 모집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모집합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63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분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고품격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12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靑 비서관 3명 교체 이유 없다"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제안

박근혜 대통령 신년 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설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다"며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뭐가 있다' 사실이 오랜 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세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안이 많아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서는 "해수 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인사 소외에 대해 질문을 받은 박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편차가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과 비서실장 내려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사하기 위해 연단에서

연하뉴스



보석같은 섬의 매력 ▶ 18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180 CDI Style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 17.1km/ℓ, 고속도로연비: 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 A180 CDI night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 17.1km/ℓ, 고속도로연비: 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